

現代精工(株), 간이형 무정전공법 장비 개발

최근 전기공사차업계에 새로 뛰어난 現代精工(株)(代表: 朴正仁)이 간이형 무정전공법장비를 개발·시판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무정전공법장비는 △변압기장치 △케이블 드럼장치 △15M 절연고소작업차 등 3개종으로, 내구성 작업성 등에서 뛰어나며 가격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변압기장치는 손쉽게 이동하여 분리·사용토록 제작된 박스형 간이식으로 무게가 가볍고 취급이 편리하며 오일보충 등이 필요없는데다 검상장치, 안전장치, 판독장치가 내장돼 있다.

케이블 드럼장치는 변압기 장치와 같이 박스형 간이식으로 60SQ 3중 압출구조로 되어 있고 폭발 위험이 없으며 접속재도 절연체로 특수처리되어 연결때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15M 절연고소작업차는 현대 5톤 차량에 탑재한 직·굴절식으로 작업속도가 빠르고 각종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미국에서도 절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정공측은 수산특장과 공동개발한 이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A/S)는 별도팀을 구성, 상시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韓電, 물품입찰 적격심사 기준 개정

韓國電力公社(社長: 崔洙秉)은 기자재를 납품하려는 신규업체의 진출이 한결 수월하도록 기존 물품입찰 적격심사기준을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납품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해 신규 진출을 못하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은 평가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아 낙찰을 좌우해온 이행실적(납품실적) 점수를 25점에서 20점으로 낮춰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한전은 물품 제조능력 심사항목(10점)을 별

도로 신설하는 한편, 1회계 연도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해오던 종전의 평가기준도 바뀌 신규 진입업체는 최근 반기 재무제표만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한전은 공장 등록연수와 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를 따져 업체의 기술능력(9점)을 평가해온 종전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업체의 연구개발 비율을 기술평가의 새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한전은 2억원 이상(예산액)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과 함께 이행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총점 100점

기준, 75점 이상 득점자를 낙찰자로 뽑고 있다.

韓電 SCADA 설치·운영 의미

송변전 원방감시제어설비(SCADA)는 전력계통의 모든 운영상태를 중앙의 급전사령실에서 원격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SCADA시스템은 전력계통의 체계적인 운용 및 변전소의 무인운전에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전력 회사들이 이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1년 서울전력관리처에 SCADA시스템을 최초로 설치됐으며 현재 9대가 운영중에 있다.

초기에는 국내에 SCADA관련 기술 및 정보가 부족해 외국의 설비를 수입해 설치했으나 부품을 확보하고 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 '98년 6월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웍을 통해 국산 SCADA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한전정보네트웍은 국산 SCADA시스템 연구·개발에 약 15억원을 투자했으며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국내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개발에 착수한지 약 14개월만에 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한전은 국산 SCADA시스템의 최초 설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특별 공정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작업단계를 체계적으로 점검, 확인하는 등 SCADA시스템의 완벽한 설치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개발된 SCADA시스템은 국내 환경에 맞도록 기기작동 용어를 한글로 표기했으며 설비 운

전자와 기계간의 연락기능을 다양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변전소 고장 재현기능을 비롯 보고서 작성 기능, 설비이력관리 기능, 피크부하 관리 기능 등 첨단 운영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 시킨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통신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설비를 이중화하는 등 설비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변전소의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국산 SCADA시스템을 전력계통 운영에 도입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은 SCADA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21세기 전력산업의 환경 변화에 필요한 전력계통 운영기반을 구축하는데 건실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은 SCADA관련 제작기술이 공장자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산 SCADA시스템 생산의 활성화는 국내 산업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산 SCADA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해 설비당 약 164만 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SCADA시스템은 경제적인 측면에

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SCADA관련 기술을 축적,

개발함으로써 향후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수출시장 전망 밝다”

KOTRA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좌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21세기 문턱에서 본 수출시장’이라는 주제로 ‘2000년 세계경제전망과 수출시장’ 세미나를 지난 12월 본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일보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156개 업체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KOTRA는 ‘7대 주요시장의 수출환경의 변화와 진출전략’이라는 주제로 시장별 특성, 수출 호부진 요인 및 진출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KIEP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 및 주요국 환율전망,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 및 전망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KOTRA는 내년도 우리 수출은 7대 주요시장에서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남미, 러시아시장에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미·일·EU·중·ASEAN 시장의 경우 올해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시장의 경우 정보통신기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로 10%대의 증가세를 유지해 수출이 3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섬유제품은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내년도 미국시장 진출확대의 전략 부문은 올해 200억달러 규모를 기록한 자동차 부품시장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산업이며, EU(유럽연합) 시장은 환경친화 및 실버상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세대를 선점하기 위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시장은 엔화 강세로 전기·전자부품 수출이 꾸준히 늘어 수출액이 165억달러로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컴퓨터 수요 증가로 반도체, LCD제품이 유망하며, 내년 4월에 복지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실버산업이 크게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시장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수출액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155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중남미 시장과 러시아 시장도 유가 인상과 이들 지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각각 7%,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신보, ‘출자전환’으로 기업회생 독려

정부가 적황색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상환 금액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회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된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출자전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적황색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들도 보증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출자전환 형식으로 채권상환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돼 기업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대우의 적황색기업 지정으로 보증이 중단된 협력업체들 가운데 부도를 맞은 기업들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이들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보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주)광림특장차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지난 8일 처음으로 출자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향후 건설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구상권 출자전환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권 출자전환 대상기업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또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회생의지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현재 공장이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의 자산실사 결과 계속 기업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신보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구상권을 주식이나 전회사채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주식으로 출자전환될 경우 해당기업은 △주식시가가 1주당 액면금액의 20% 이상 돼야 하고 △1주당 구상권의 주식 전환금액이 주식시가의 3배 이내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채권 출자전환의 경우 △구상권의 사채 인수비율이 사채 발행금액의 3배 이내여야 하며 △전환조건과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등을 감안해 전환심사일 현재 당해 기업의 주식시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구상권 전액을 출자전환 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대상물건의 예상구상 실익이 출자전환 주식 및 사채의 시가총액의 50%미만이어야 하며 구상권 일부를 출자전환 받기 위해서는 예상구상 실익이 출자전환 후 잔존하는 구상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의무를 지닌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증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출자전환을 통해 기금의 재무제표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회생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발생한 기술신보의 구상채권 규모는 8711억원으로 이 가운데 1881억원이 회수됐으며 남아 있는 구상채권 잔액은 모두 2조 6562억원에 달하고 있다.

照明組合,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

韓國照明工業協同組合(理事長:姜永植)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받았다.

조합이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받게 된 것은 우수단체표준으로 인정받게 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혜택이 주어지도록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키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조합으로부터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정받게 된 제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구매 혜택을 받게 된다.

조합이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제품은 △나트륨램프(KIIC 1001) △메탈할라이드

램프(KIIC 1002) △형광램프(KIIC 1004) △콤팩트형 형광램프(스타터내장형)(KIIC 1007) △콤팩트형 형광램프(스타터비내장형)(KIIC 1008) △가로등용 전자식자동점멸기(KIIC 1012) △보안등용 전자식자동점멸기(KIIC 1013) △보안등용 광전식자동점멸기(KIIC 1014) △보안등용 복합식자동점멸기(KIIC 1015) △보안등용 무선식자동점멸기(KIIC 1016) △무대조명장치(KIIC 1017)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IIC 1019)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KIIC 1020) △고압수은램프(KIIC 1021)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KIIC 1023) 등이다.

조명기구, 수출 활성화 대책 절실

조명기구업계 수출이 뚜렷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실적 또한 매우 미비해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電燈器具工業協同組合(理事長:朴仁福) 및 등기구제조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명기구의 수출은 몇몇 한정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이나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필수조건인 CE, UL마크를 획득한 업체도 10여개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지 또한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등기구조합 회원사 104개 기업의 올해

수출실적은 약 6,5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실적은 독일 오스람의 현지법인인 오스람코리아 2,000만달러, 선박용 특수등 제조업체 대양전기공업 1,300만달러, 금호전기·금동조명등 램프제조업체 1,600만달러, 전광판제조업체 대한전광 500만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명기구 제조업체의 물량은 1,300만달러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26개 기업중 UL획득업체는 10개사, CE 5개사, JIS 2개, TE 2개사 정도이며 이같은 취득현황 또한 금호, 금동 등 국내

유명 조명메이커들이 중복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외인증획득업체는 10개사에 머물고 있다.

또 대부분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마크획득을 기피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이 확보되면 인증을 받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못

하고 관급공사 등에만 주력하고 있어 덤핑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업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럽, 미국, 일본 등 수출전망이 좋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확보가 중요하므로 중기청과 협력해 조합차원에서 인증취득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명분야 국내서 국제품질 인증

조명분야에 대한 국제 품질인증을 국내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전기시험연구원(KETI)은 최근 국제전기기기 인증위원회로부터 국내 최초로 조명분야 인증시험기관(CB)으로 지정받아 지난달 16일부터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제전기기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소운영 품질시스템 구축과 국제시험기준인 IEC 규격에 적합한 시험설비, 시험환경 및 시험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세계적으로도 33개국에 47개 기관만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명분야에 대한 국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중소 조명기기업체들이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에 국제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조명업체들이 국제규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업체당 1000만원의 비용과 4~5개월의 기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200여만원 정도와 2~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산조명기기의 품질수준 향상과 함께 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大韓電氣協會, 2000년판 전기연감 발행

전기계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2000년도 전기연감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한전기협회가 전기계에서 유일하게 발행하고 있는 전기연감(2000년판 통권 제35호)은 지난 1년

간의 분야별 사업실적과 계획 및 전망 등을 각계의 권위있는 집필진에 의해 엮어진 것으로서, 전기계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의 동향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지침서로 2000년판 전기연감은 전력사업,

원자력산업, 전기공업, 전자산업, 연구개발·기술 교육, 전기관련사업, 전기계 편람, 국내외 전력통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망라 했다.

특히, 별책부록인 「전기인명록」에는 전기관련기관, 연구기관, 전력·에너지 관련 분야, 전기관련단체, 대학교, 전기관련단체 회원사 등 각계의 주

소, 전화번호와 인명이 수록되어 있어 전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4×6배판, 881면, 양장케이스, 가격은 별책 부록포함 55,000원

